2022 MBC 카타르 월드컵 현지 방송제작 후기

김택구
MBC 제작기술팀
중계기획파트 차장

최초와 최후의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겨울에 개최된 월드컵이다. 그리고 아랍권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으로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다시 열리는 월드컵이며 32개국 체제의 마지막 월드컵이다. 이런 최초와 최후의 타이틀을 지닌 월드컵을 위해 MBC도 어쩌면 마지막 월드컵 중계가 될 수 있기에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 카타르 월드컵이 보유한 마지막 월드컵 중계권이기 때문이다. 워낙 월드컵 중계권이 비싸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어떤 방송사에서 제작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카타르 월드컵 준비 과정

국제방송센터(International Broadcast Centre) 공간 설계

보통 해외 대형 스포츠 행사들은 대회 개막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카타르 월드컵 첫 업무는 다른 스포츠 행사와 마찬가지로 공간 설계였다. 카타르 월드컵 국제방송센터(IBC)는 월드컵 조직위의 삼엄한 통제하에 카타르 국제 전시관(QNCC)에 마련됐다. 지금까지의 국제 대회 중 가장 통제가 심했던 대회였다. 출입 게이트마다 AD 카드를 확인했고 심지어 손톱깎이도 반입이 금지되었다.

그림 1. 카타르 월드컵 IBC(International Broadcast Centre)

그림 2. IBC 로비의 Spider 조형물

그림 3. IBC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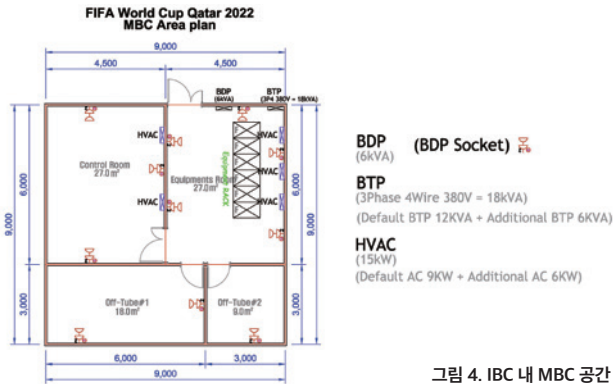

그림 4. IBC 내 MBC 공간

월드컵은 주관방송사(HBS)에서 Pre designed 된 공간을 크기별로 제공한다. 그래서 각 방송사는 알맞은 크기의 공간을 선택하여 공간 설계를 진행한다. MBC는 81sqm의 제작 공간과 21sqm의 사무실 공간을 신청했다. 21sqm 사무실 공간은 편집팀과 해설진 준비 및 대기공간으로 주로 사용했다. 81sqm 제작 공간은 기계실겸 복도, MCR(Master Control Room), Off Tube, PD 사무실로 구성했다.

그림 5. MBC MCR(Master Control Room)

그림 6. MBC 기계실 및 복도

그림 7. MBC Off Tube

타 방송사보다 작은 제작 공간을 신청해서 장비 배치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했다. 70인치 TV 4대로 모니터링을 준비했고 AMU(Audio Mixer Unit)와 VMU(Video Mixer Unit) 및 LSM(Live Slow Motion) Controller, Camera Controller 그리고 송출 모니터링 장비들을 MCR에 구축했다.

시스템 설계

월드컵은 다른 종합대회와는 달리 축구 1종목이다. 그래서 국제 신호를 편집해서 제작도 하지만 HBS에서 제작된 국제 신호를 대부분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설계했다.

카타르 월드컵 국제 신호 포맷
1) HD
· Video : 1.485Gbps 1080i/50 HD SDI with up to 16 embedded audio SDR, Rec.709
· Audio : Stereo + 5.1ch Surround sound

2) UHD
· Video : 11.88Gbps 2160p/50 UHD 12G SDI with up to 16 embedded audio HDR(HLG), BT.2020
· Audio : 9.1ch Immersive sound

국제 신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경기장에서 제작되는 실제 중계 신호들이다. 예선전은 하루에 4경기가 있기 때문에 1, 3경기를 MATCH A FEED로 받고 2, 4경기를 MATCH B FEED로 받았다. 각 FEED는 경기장 중계 영상 9개와 선수들 액션용 영상 2개, GCSF 2개로 구성된다.

월드컵은 경기 상황(선수교체, 카드, 경기 분석 등)에 대한 CG를 한글로 제공하는 옵션이 있다. 보통 CG는 경기 정보들을 받아 현장 중계차 또는 부조에서 넣는다. 하지만 월드컵 경기에 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 한국에서 한글 자막으로 넣은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월드컵은 실시간 일어나는 경기 상황 CG를 해당 나라의 언어로 제공해준다. 지상파 3사는 이런 이유로 한글 CG가 들어간 중계 화면을 사용했다 이를 GCSF(Graphic Clean Stadium Feed)라고 한다. GCSF에는 경기 상황에 대한 CG만 들어가고 보통 좌측 상단에 있는 나라명, 스코어, 시간 등의 CG는 제공되지 않는다.
우리가 TV로 본 지상파 3사 경기 영상들은 모두 GCSF에 각 방송사가 한국에서 나라명, 스코어 등의 CG를 입힌 영상들이다.

두 번째는 현장 해설진용 신호와 선수 인터뷰 신호들이다. 현장 해설진용 신호는 해설진 모습을 보내주는 Commentary Camera(COM CAM) 영상 신호와 해설진의 음성을 보내주는 Commentary 음성 신호로 구성된다. 그리고 인터뷰 신호는 각 사가 신청한 HBS ROUTER를 통해 받을 수 있다. COM CAM은 보통 대한민국 경기에만 신청했고 그 외 경기는 신청하지 않았다. 그 외 나라 경기에는 PITCHSIDE POSITION을 신청해 OPENING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경기에는 보통 각 사의 ON AIR를 현장 해설진이 볼 수 있도록 경기장까지 회선을 구성하였다.

시스템은 올림픽보단 국제 신호 수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월드컵에서 있었던 이슈는 아무래도 송출에서 사용하는 엔, 디코더에서 HBS ROUTER 오디오 신호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각 사에서 모두 발생한 문제였고 MBC는 각 송출단 전에 FS를 걸어서 해결했다. 이런 문제는 올림픽에서도 발생했었고 주관방송사에서 제공해주는 신호 중 어떤 부분이 달라서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FS를 추가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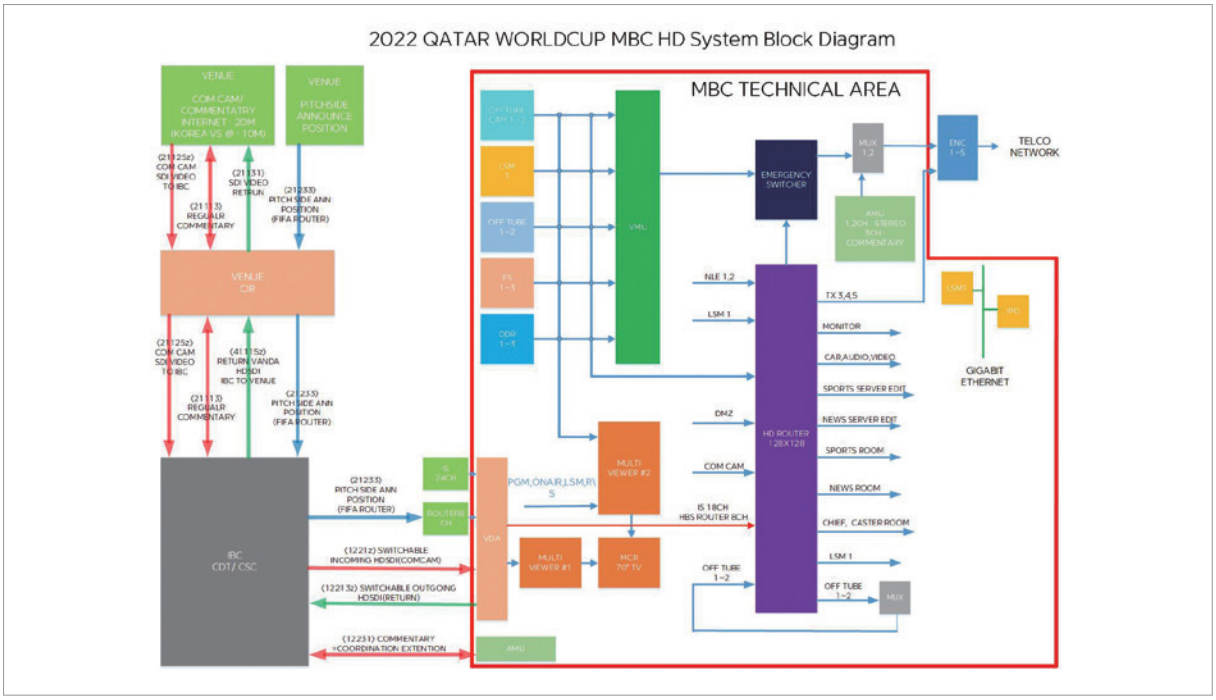

그림 8. MBC VIDEO System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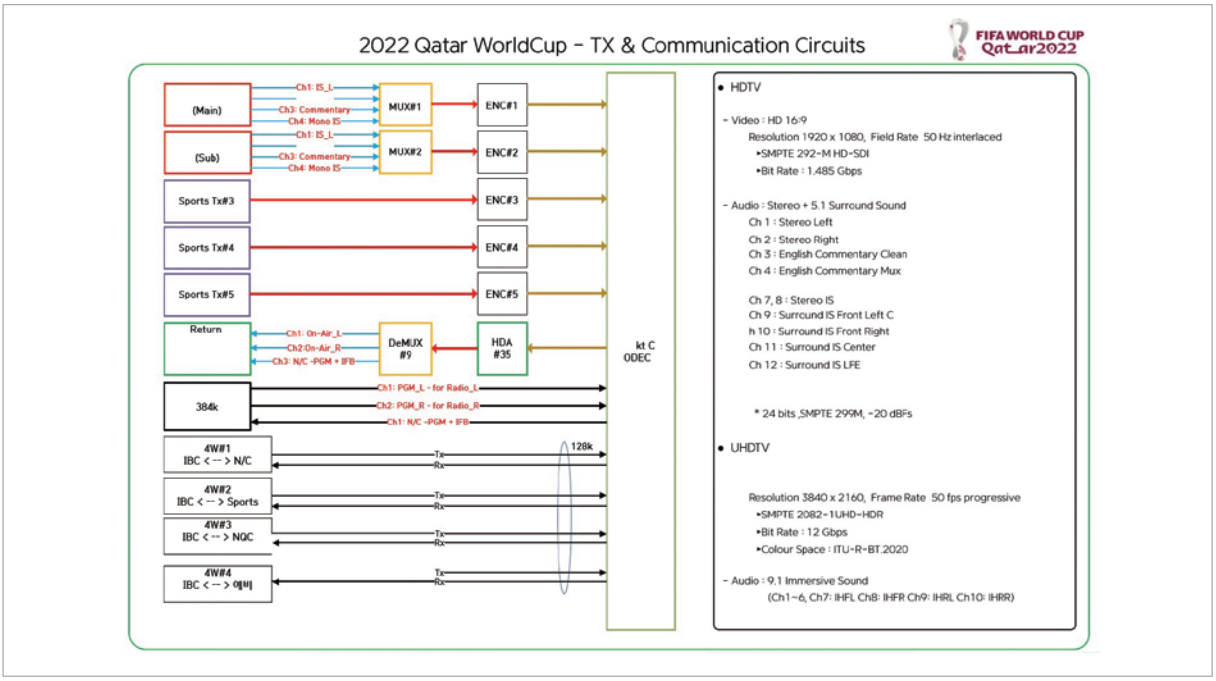

그림 9. MBC AUDIO System Diagram

카타르 월드컵 방송제작

대회가 개막하면서 각 방송사는 하루에 4경기씩 아침부터 자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송제작에 임하였다. 국제 신호들을 모니터링하고 타임 스케줄에 따라 영상을 받아 제작해서 송출했다. 아무래도 영상은 각 사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오디오에서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었다.
해설진의 중계 역량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목소리들을 경기장 현장음과 조화롭게, 그리고 시청자들이 더 편하고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김성주·안정환·서형욱이라는 검증되고 경쟁력 있는 해설진을 보유한 MBC는 오디오 감독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을 더 해 시청률 1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가장 적은 인원으로 최고의 효율을 보여준 카타르 월드컵이었다. 해단식에서도 현장 스텝들이 너무 고생했다고 다음 월드컵에는 더 많은 인원을 보내달라고 안정한 해설위원이 사장님께 부탁할 정도였다.
서울과 카타르 IBC, 경기장 해설진들 사이의 인터컴은 단 한 번의 끊김없이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이어졌고 해설진의 목소리는 최고의 믹싱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림 10. 974 Stadium

그림 11. Lusail Stadium

그림 12. 경기장 내부

카타르 월드컵 방송제작 소회, 百聞而 不如一見

그림 13. 결승전 시상식

10월에 도착한 카타르는 정말 너무 더웠다. 햇볕은 너무 뜨거웠고 바람 한 점 없어 입고 갔던 가을옷들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었다. 카타르 가기 전 생각보다 밤 날씨가 춥다는 여러 여행 및 현지 후기들을 보고 전기장판을 준비했고 수돗물에 석회질이 많다고 해서 샤워기 필터도 갖고 갔다. 결과적으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그대로 다시 가져왔다. 결국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경험하지 못한 지식은 나에게는 죽은 지식이었다.

카타르 월드컵이 첫 월드컵이어서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용어는 생소하고 약어의 뜻을 봐도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 더구나 올림픽과는 달리 월드컵은 각 사 시청률을 모두 주목하고 있었고 특히 대한민국 경기 시청률 순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출발하기 전 사장님이 시청률 20%에 해외여행을 약속하셨기에 동기 부여가 확실했다. 물론 반신반의였다. 시청률 20%가 쉬운 것도 아니고 설사 넘었어도 약속을 과연 지키실지도 문제였다. 뉴스에도 나갔지만 사장님이 약속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런 공약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큰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MBC와 제작진에게 모두 해피엔딩이었던 카타르 월드컵이었고 다음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꼭 확보해서 시청률 1위 2연패의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